

CESCO Food Safety NEWSLETTER

2018. December _ Vol. 119

발행처 _ (주)세스코 식품안전연구소

주소 _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로 10길 46 (주) 세스코 터치센터

대표번호 _ 02-2140-0288 http://cescofood.co.kr

NEWS 식품안전 주요 NEWS

인천시 특사경, 소래포구 무신고 젓갈 판매업소 적발

- 13개소 입건 수사 후 검찰 송치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젓갈류를 판매하다 적발된 13개소에 대하여 입건 수사하고 지난 18일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김장철을 앞두고 수도권지역 많은 소비자들이 김장재료인 새우젓 등 젓갈류를 구입하기 위해 소래포구 어시장을 찾고 있어 이들 업소들에 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주들은 소래포구 어시장에 난립된 무허가 건축물에서 영업신고도 없이 비위생적으로 젓갈을 판매하다가 적발되었다. 수사결과 이들 업주들은 무신고 불법 영업행위로 연간 수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젓갈류 등을 손님들이 원하는 만큼 덜어서 판매할 경우 관할 구청장에게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위생관리 기준을 지켜야한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소래포구에서 판매되는 새우젓 등 젓갈류는 인천시민 뿐만 아니라 소래포구를 찾는 관광객들이 주로 구입하는 관광 먹거리 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위생관리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라며, 또한, "앞으로도 불량젓갈 판매 행위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인천광역시청, 12월 19일)



CESCO 세스코 터치센터 전경

CESCO Food
Food Safety
세스코식품안전Zone
1588-1119

세스코 식품안전서비스

세스코 식품안전감사 서비스

[P1] 식품위생진단

“약속된 기준을 잘 실행하고 있는지” 점검

[P2] 식품안전진단

“실행해야 할 기준이 적정하고 실행이 양호한지” 평가&진단



내 사업장 식품안전 체계의 새로운 변화!!



고객 니즈에 맞춘 식품안전감사 제공

- 업종 특성, 글로벌 위생관리기준 접목
- HACCP컨설팅 know-how 접목
- Data 기반의 객관적 자료, 문제 발생 사전예방 가능



해충방제+Food 복합서비스로 시너지 효과

- 시설+설비 2개 관점 진단 ▶ 이물 관리 특화
- ▶ 이물 클레임 예방

제주자치경찰단, 수산물 원산지위반 10건 적발

-수품원과 합동단속...수입산 다금바리 등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 여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일본산이나 중국산 다금바리, 돌돔, 참돔 등이 국내산이나 제주산으로 둔갑해 판매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과 합동 특별단속을 벌여 총 10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판매한 식당 5곳은 형사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해온 식당 5곳은 행정처분하도록 관련부서에 통보했다.

합동 특별단속 결과, 일본산 벵에돔, 일본산 다금바리, 중국산 참돔, 일본산 돌돔과 다금바리, 중국산 옥돔을 각각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손님과 관광객에게 속여 판매하다 적발됐다. 제주시 소재 일식집과 횡집 5곳에서는 방어, 히라스, 광어, 참돔, 우럭 등을 활어상태로 수족관에 넣어 보관하거나 판매하면서 수족관 또는 식당내부 메뉴판 등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미표시로 적발됐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일부 횡집에서 원산지 위반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수품원, 해양수산부서 등 단속협의체 기관과 수산물에 대한 합동단속을 정례화하고 불시단속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행정제재와 벌칙

위반 내용	행정제재 또는 벌칙
원산지 거짓표시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
원산지 미표시	5만원~1천만원 이하 과태료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12월 18일)

🔍 정책 / 법령 정보

유통이력추적관리 대상 수입식품으로 임산·수유부용 식품 추가

-식품유형별 매출액 기준으로 단계별 의무화...50억 이상인 영업자는 19년 12월 1일부터 시행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 시에 위해정보에 따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하는 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고,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수입신고인이 해당 조건의 이행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 중 중요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수입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수입식품 등뿐만 아니라 적합으로 판정된 수입식품 등에 대해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관련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유통이력추적관리 대상 수입식품 등으로 임산·수유부용 식품 등을 추가하는 등 관련 법령을 일부개정하여 공포한다고 밝혔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12월 20일)

🏠 세스코 식품안전위생진단 서비스

1 Step

FOOD SAFETY CONSULTANT

외식업장의 사업을 돕는 식품안전 컨설턴트가 찾아갑니다



2 Step

3,021 🔍

조리시설의 식품안전 위해요소를 3,021가지의 기준으로 철저히 진단합니다

3 Step

UPGRADE ↑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사업장으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4 Step



세스코의 다양한 업장홍보 프로그램으로 소비자가 먼저 찾는 깨끗한 맛집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식품과 축산물 표시기준을 하나로 통합

- 「식품등의 표시기준」 전부개정 고시 ...'22.1.1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과 축산물에 동일한 표시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식품과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하나로 통합한 「식품등의 표시기준」 전부개정안을 12월 19일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19.3.13.)에 앞서 식품과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일원화하여 소비자와 영업자에게 식품 표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은 ▲축산물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에 '젓' 추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생산한 식육가공품에 '식육의 종류와 함량' 표시 의무화 ▲카페인 허용오차 일원화(표시량의 90~110%) ▲식품을 해동해서 판매할 경우 '해동업체 명칭과 소재지' 표시 의무화 ▲축산물 표시에 외국어 활자크기 제한 규정 마련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식품에는 표시를 의무화하여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12월 20일)

어린이, 초콜릿 과다섭취 주의

- 일부 제품 카페인 함량, 일일 최대섭취권고량 초과할 수 있어

한국소비자원은 일부 제품은 카페인 함량이 어린이의 일일 최대섭취권고량에 근접하거나 초과할 수 있어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중 판매 중인 초콜릿류 25개 제품에 대한 카페인 함량 조사 결과를 밝혔다.

조사대상 초콜릿류 25개 제품의 카페인 함량은 1개 당 3.7~47.8mg(평균 17.5mg) 수준으로 제품 간 최대 13배 차이가 있었고, 일부 제품은 성인이 주로 섭취하는 커피음료(88.4mg)나 에너지음료(58.1mg)에 비해서는 낮으나, 콜라(23mg)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었다. 식품유형별로는 (다크)초콜릿(13개, 평균 22.8mg)이 밀크초콜릿(12개, 평균 11.8mg)보다 약 2배 정도 높았다.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차원에서 관련 사업자에게 ▲자발적인 카페인 함량 정보 제공을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초콜릿류 등 어린이 카페인 섭취 주요 기여 식품군의 카페인 함량 모니터링 강화 및 어린이 기호식품의 카페인 함량 표시의무화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12월 14일)

세스코 표시컨설팅 서비스

비용

짚은 법령 변경에 따른 인쇄 등판 변경 최소화 유도
이슈로 인한 불용&회수 제품 최소화

인력(역량) 관리

짚은 인력 변화에 따른 관리 역량 유지
표시 관리 인력의 업무 효율성 증대

마케팅

최소 표시사항 적용으로 마케팅포인트 면적 증가
디자인 통일성 향상

【 표시 검증 】

- 표시사항, 셀링포인트
- 솔루션 제공

【 현장 표시 검증 】

- 표시사항, 셀링포인트
- 현장방문, 일당 10제품

【 표시 작성 】

- 표시사항, 영양성분표 작성 및 솔루션 제공

【 Online/광고물 검증 】

- 셀링포인트/체험기/댓글 등 허위,과대 광고 검증

제품 출시 처음부터 끝까지 법규 기반의 체계적인 법규 리스크 관리

'18년 12월 ~ '19년 2월(예정) 점검 일정

점검명	점검 대상	점검기간
○ 동절기 다중이용시설 점검	스키장, 눈썰매장, 아이스링크 등 조리.판매	12.26 ~ 12.28
○ 설 대비 성수식품 범정부 합동점검 (미정)	식품(한과류 등), 건강기능식품(홍삼 등), 축산물(식육세트 등), 농.수산물(제수용품 등 제조판매)	미정('19년 1월 점검)
○ 발렌타이데이 대비 점검	초콜릿, 과자류(캔디류) 등 제조.소분.판매	미정('19년 2월 점검)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산업 NEWS

2019년을 이끌 외식 경향(trend)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2019년 외식 트렌드를 이끌어갈 키워드로, '뉴트로 감성', '비대면 서비스화', '편도족의 확산'을 선정하고, 2019 외식소비 트렌드 발표대회를 통해 발표했다.

우선, '뉴트로 감성'은 익숙하지 않은 옛것(아날로그 감성)들이 젊은 세대에게 신선하고 새로운 것으로 느껴져 인기를 끌고 있는 현상을 의미한다. 뉴트로 음식에 제한되지 않고 간판, 디자인,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뉴트로 감성'이 키워드로 도출되었다. 외식분야에서는 골목상권에 대한 관심증가가 이러한 현상을 대표한다. '비대면 서비스화'는 패스트푸드나 편의점, 대형 마트 등에서 사용되는 무인주문 및 결제시스템의 확산을 의미한다. 무인화·자동화의 확산에 따른 배달앱, 키오스크, 전자결제 등의 발달로 외식 서비스의 변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 형태가 영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외식분야에서 '비대면'의 의미는 사람 중심의 서비스에서 기계중심의 서비스로의 이동으로 대표되고 있으나, 외식업계에서는 사람중심의 고급화된 서비스와 편의성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로 양극화 질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산업 구조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발표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세스코 식품안전' 사이트(▶[자료 다운로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12월 12일)



HACCP 의무 교육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0호) cescofood.co.kr

HACCP 정기 과정 (1/9, 22)

- 년 1회 HACCP 팀장이 반드시 이수 (법정 교육)
- 효율적인 HACCP 사후관리 방법, 요령 습득

HACCP 경영자 과정 (1/22, 2/19)

- HACCP 추진 시 최고경영자의 역할 인식
-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가 참석

HACCP 팀장 과정 (1/10~11, 23~24)

- 신규로 HACCP을 인증받기 위해 필요한 법정 교육
- HACCP 팀장 또는 교육을 필요로 하는 모든 분
- '세스코 시뮬레이션센터'에서 현장 실습까지 한번에!



식품 전문 교육



표시 연관 법규와 식품표시 실습(1/25)

- 표시 업무를 직접하는 강사의 노하우를 한번에~
- 표시 연관 법령을 한눈에 소개 (법, 공전, 기타 법령)
- 사례 위주로 표시기준을 이해하고 원산지, 영양성분표, 표시사항 작성, 제품 표시 분석, 오류사항 찾기 실습도!~

